

졸업전시회 계획서

2011300122_김용준

1. 졸업작품 소개

1] 이름(학번) : 2011300122 김용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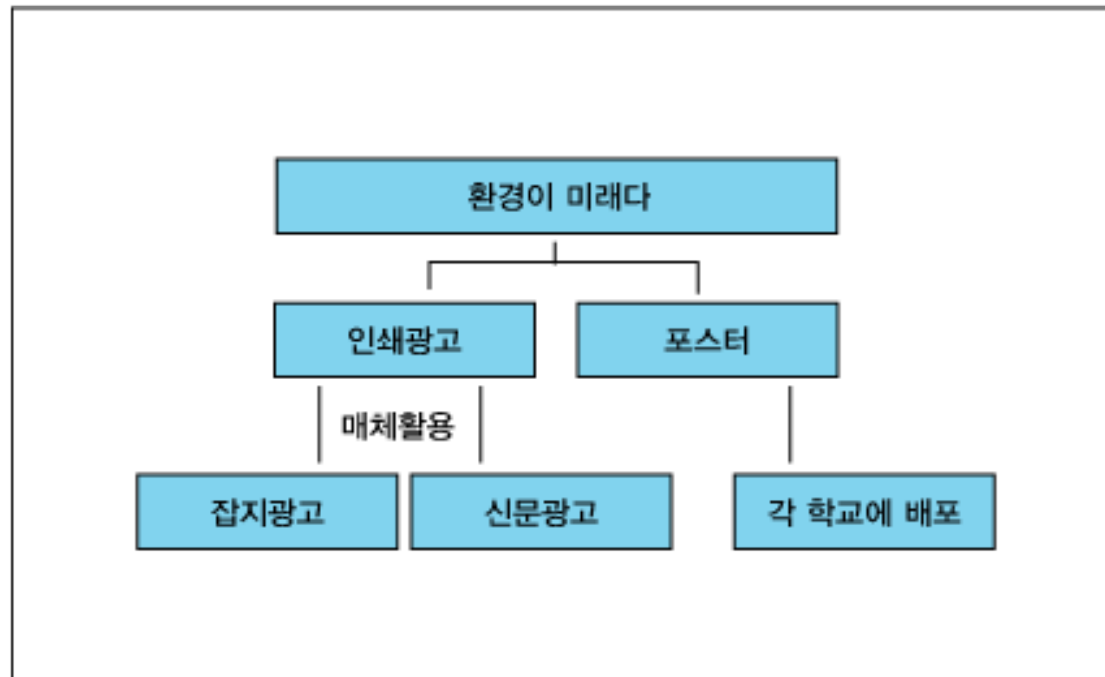
2] 작품제목 : 환경이 미래다

3] 작품 내용 요약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우리나라도 이상기온 현상 이라든지 태풍, 가뭄 등의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주제 “미래형 신도심” 아래 소주제로 환경생태지역을 주제로 하여 환경캠페인 인쇄광고를 제작할 계획입니다.

4] 작품의 개념도



5] 작품의 필요성 및 중요성

어떤 행사를 하든 기본적으로 그 행사를 알리는 홍보물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환경생태지역을 주제로 지구온난화에 대한 심각성과 경각심을 홍보할 수 있는 인쇄광고를 선택했습니다.

2. 졸업작품의 주제와 내용

1] 주제 설명 : 미래형 신도심 - 환경생태지역

2] 현황조사(사례조사)

환경의 중요성 및 국내외 환경광고 사례 분석

3] 내용 및 범위

환경생태지역파괴로 인한 지구온난화의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광고를 만들어 나갈까 생각합니다. 온난화도 여러 분야로 접근할 수 있지만 저는 생태지역파괴에 대한 주제로 접근해보려 합니다.

4] 스토리보드 만들기

포스터 및 인쇄광고를 제작하기에 별도 스토리 보드는 제작 안함

인쇄광고를 제작함에 있어 상황에 따라서는 여러편의 시리즈광고를 제작할 수 있습니다.

3. 일정

1] 작품 추진계획 및 진행 일정

9월 중 자료조사 및 아이디어 스케치

10월 중 시안작업 및 카피 수정

11월 포스터 및 인쇄광고 완성

2] 결과물의 형식

포스터 및 인쇄광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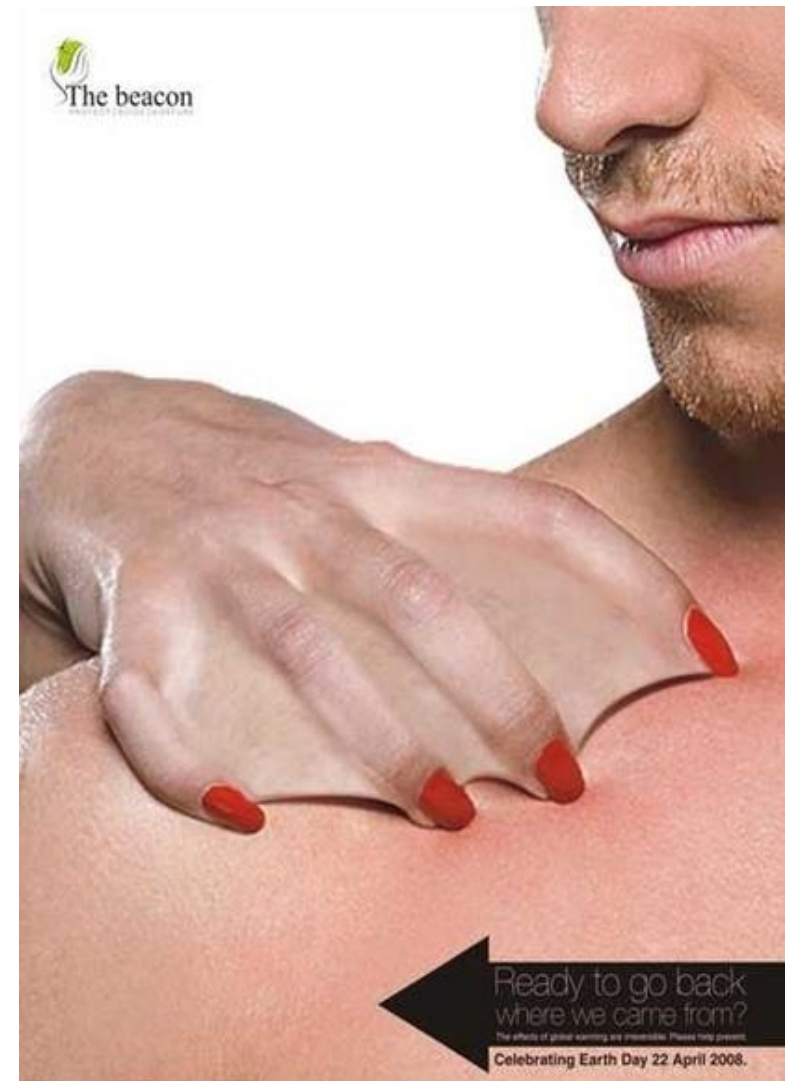
3] 전시방법 - 온라인 전시

국내 및 해외 환경광고사례



지구 온난화 현상- WWF의 광고
빙하가 아이스크림처럼 녹고 있다는 것을 표현

심플하면서도 말하고자 하는 바가 분명히 드러나고
지구 온난화의 심각성도 깨우쳐주는 인쇄광고-



위의 광고와는 조금 다른, 약간의 추측이 필요하고 더 위협적인-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이 높아져서 사람들이 물고기처럼 진화할거라는 내용

현실성은 없지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ㅠ ㅠ



이 역시 WWF의 지구 온난화 광고
지구 온난화로 인한 물속도시와 잠겨있는 차들-



와, 진짜 기발하다. 하고 감탄했던 광고
물 속에 잠긴 도시와 그 위를 수영하고 있는 사람들

금융회사 HSBC 인도네시아가 자사의 '지구 온난화 예방 캠페인'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구영장 바닥에 하늘에서 내려다본 도시의 이미지를 래핑한 옥외광고로,
수영장에 물이 차면 마치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도시가 물에 잠긴 듯한 모습이 연출된다

실제로 저기서 수영하면, 조금 무서울 것 같기도-



스포츠웨어 브랜드 Columbia에서 실시한 쇼킹한 비주얼의 옥외광고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된 칠레의 한 아파트 외벽에 도시가 물에 잠겨 공포에 떨고 있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래핑했다

단순한 결과를 통한 경고가 아닌,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에어컨 실외기를 같이 활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확실히 제시하는 광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구온난화를 경고하는 광고를 했는데, 우리나라 광고답지 않게 기발하다고 생각한 광고
 녹색연합의 지구온난화 경고 캠페인으로,
 해수면 상승으로 점점 물에 잠기는 섬의 모습이 마치 도와달라고 절규하는 듯한 사람의 손(위)과 얼굴(아래)의 형상같다



Tree Trunk - Tissue Roll Dispenser

While there is increased awareness about the importance of saving paper and its impact on conserving trees, the same, however, cannot be said about the usage of toilet tissues.

Going by our belief that 'conservation starts at home', we undertook an ambient media campaign starting off with washrooms within the DDB premises and thereafter, taking it to other divisions of the OHI Group. The tissue roll dispenser became a tree trunk, driving home the fact that every tissue wasted was a threat to the environment.





... e não se trata de uma simples pedra.

Se trata de um
pedra
descoberta em
uma das pedras
de uma das

... e
... e
... e
... e
... e
... e
... e
... e
... e
... e



FUNDAÇÃO S.A.S. MATA ATLÂNTICA



Legambiente : Park, Street

Stop hiding problems. Let's start by participating the 25, 26 and 27 of September in Puliamo il Mondo. Live sustainably.

이탈리아 환경단체인 레감비엔테(Legambiente)의 환경보호 캠페인 광고로 공원의 잔디와 도로의 아스팔트를 카펫으로 표현하여 쓰레기를 카펫 안으로 밀어넣고 있는 모습이 담긴 인쇄 광고로 눈감고 아용하듯 문제들을 숨기기 위해 미봉책으로 해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유함과 동시에 9월 25, 26, 27일에 열리는 'Puliamo il Mondo'이란 캠페인을 통해 환경 문제에 있어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우리들의 잘못된 의식도 바꾸고, 유비무환으로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캠페인 광고입니다.



WWF : Salve o Planeta

세계야생동물기금협회(wwf) 브라질 지회에서 지구의 환경을 위한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누어 준 풍선을 홍보물입니다.

이 풍선은 2개의 풍선으로 불투명한 풍선 안에 지구가 인쇄된 풍선이 들어있습니다.

불투명한 풍선은 우리의 오염된 대기권을 나타내며 이 풍선을 꼬리표에 붙여 있는 바늘로 찔러 터뜨렸을때 맑고 깨끗한 지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지구 풍선은 단순히 동그란 모양이 아닌 해바리기를 닮은 모양으로 하나의 꽃을 들고 들고 다니는 셈이 되겠습니다.



졸업작품 진행

1차

머그컵 사용으로
북극곰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Global Warming

국내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 종이컵의 양은 약 120억 개로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면 연간 20년 된 나무 120만 그루를 살릴 수 있으며 1,200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머그컵 사용으로 북극곰의 보금자리도 지키고 우리아이들이 미래도 지켜주세요.



머그컵 사용으로
남극펭귄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Global Warming

국내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 종이컵의 양은 약 120억 개로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하면 연간 20년 된 나무 120만 그루를 살릴 수 있으며 1,200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머그컵 사용으로 남극펭귄의 보금자리도 지키고 우리아이들이 미래도 지켜주세요.



2차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Global Warming!



머그컵 사용으로 북극곰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국내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 종이컵의 양은 약 120억 개로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할 경우 연간 20년 된 나무 120만 그루를 살릴 수 있으며 1,200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머그컵 사용으로 북극곰의 보금자리도 지키고 우리아이들의 미래도 지켜주세요.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Global Warming!



머그컵 사용으로 남극펭귄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국내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 종이컵의 양은 약 120억 개로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할 경우 연간 20년 된 나무 120만 그루를 살릴 수 있으며 1,200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머그컵 사용으로 남극펭귄의 보금자리도 지키고 우리아이들의 미래도 지켜주세요.

3차

kobacó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Global Warming, Warning!



머그컵 사용으로 북극곰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국내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 종이컵의 양은 약 120억 개로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할 경우 연간 20년 된 나무 120만 그루를 살릴 수 있으며 1,200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머그컵 사용으로 북극곰의 보금자리도 지키고 우리아이들의 미래도 지켜주세요.

kobacó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Global Warming, Warning!



머그컵 사용으로 남극펭귄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국내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 종이컵의 양은 약 120억 개로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할 경우 연간 20년 된 나무 120만 그루를 살릴 수 있으며 1,200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머그컵 사용으로 남극펭귄의 보금자리도 지키고 우리아이들의 미래도 지켜주세요.

최종파일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Global Warming, Warning!



머그컵 사용으로 북극곰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국내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 종이컵의 양은 약 120억 개로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할 경우 연간 20년 된 나무 120만 그루를 살릴 수 있으며 1,200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머그컵 사용으로 북극곰의 보금자리도 지키고 우리아이들의 미래도 지켜주세요.



kobaco
한국방송광고공사 | 공익광고협의회

Global Warming, Warning!



머그컵 사용으로 남극펭귄의 보금자리를 지켜주세요

국내에서 1년 동안 버려지는 일회용 종이컵의 양은 약 120억 개로 종이컵 대신 머그컵을 사용할 경우 연간 20년 된 나무 120만 그루를 살릴 수 있으며 1,200억 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도 줄일 수 있습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머그컵 사용으로 남극펭귄의 보금자리도 지키고 우리아이들의 미래도 지켜주세요.

